

5평 늘리려... 요양병원 기동 잘라낸 건물주

임대수의 노리고 비상계단 철거 등 불법 용도변경 상가 등 입주 안전불감...광산구 수차례 민원 방관

건물주가 임대 수익을 노리고 건물 내 요양병원 환자들을 위한 비상용 계단을 철거하면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시설물 안전 관리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구청은 인근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현장 조사 등 적극적인 관리나 단속은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8일 광주시 광산구와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A요양병원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환자들을 위한 비상용 계단 3곳 중 1곳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소방서는 비상용 계단으로 준공 승인을 받은 만큼 철거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난 공사는 '불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건물 2·3층에 들어선 요양병원(170 병상)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입원·치료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칫 불상사가 날 경우 비상용 계단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비상용 계단 한 곳이 사라지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환자들이 몰릴 경우 넘어지는 사고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층 점포와 비상용 계단 사이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이 사라졌고, 건물 2·3층을 지탱하는 H빔도 일부 철거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상용 계단을 철거하면서 1층에 여유 공간(16.52㎡·5평형)이 생김에 따라 임대료 증가를 봤다는 게 인근 주민들 및 건축업계 설명이다. 현재 임대 건물 임대료는 3.3㎡당 2500만원 수준 이상을 받고 있다.

인근 상가 주민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수차례 행정 당국에 제기했지만 광산구는 현장 조사 대신, 건축주에게 공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이후 광주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지난 7일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선 상태다. 광산구의 미온적 태도로 주민들의 건축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키치고 있다. 광산구의 경우 앞서 원룸 쪼개기, 준공 앞둔 건축물 철거 명령 등 부실한 건축 행정에 따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용도변경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불법용도변경에 관여한 건물주와 건축설계사 등을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양금덕 할머니·시민모임 도쿄서 日정부 비판 집회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 징용된 양금덕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8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집회를 갖고 최근 법원 판결 결과 등을 설명했다.

양 할머니는 특히 이날 집회 때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조선인들이 강제로 일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경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양 할머니는 "지금 70살 넘는 일본분들은 우리가 미쓰비시 공장에서 강제노동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양심적으로 말하지 않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법정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원고들에게 한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면 상고를 포기하고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



故 김철균 서기관 영결식 엄수 중국에서 연수 중 버스사고로 숨진 광주시청 김철균(55) 서기관의 영결식이 8일 윤장현 시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광주시청장(葬)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검·경, 의료기기 리베이트 정황 포착 수사

광주경찰, 업체 관계자 조사...지역 의료계 파장

검·경이 서울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광주지역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광주 경찰이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가면서 지역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병원 의료진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지역 중·대형 병원을 상대로 자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 명목으로 지속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참고인 자격으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세미나 명목으로 지역 대학 교수 등 의료진 30여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뿐 아니라 검찰도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해당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디지털 파일을 비롯한 관련 문서 등을 확보, 분석 중이다. 광주고검 디지털수사팀도 서부지검 지원 요청을 받고 해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어깨·무릎 인공관절

등 수술 종류별로 차별화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가 하면, 세미나 형식을 빌려 의료진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했다는 등 첩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수사로 확인될 경우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이와관련, "업체를 운영한 지 1년 밖에 안됐고 부채도 많은데,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뒤 "검·경이 조사를 하고 있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대응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물결 00:05
해질 19:50 물집 13:03

후텋지근한 장마철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쳐졌다.

◇지역별 날씨 (℃)

광주	22/28	보성	비온뒤 흐림	21/26	
목포	비온뒤 흐림	21/27	순천	비온뒤 흐림	22/27
여수	비온뒤 흐림	21/25	영광	비온뒤 흐림	22/28
나주	비온뒤 흐림	21/28	진도	비온뒤 흐림	21/27
완도	비온뒤 흐림	21/27	전주	비온뒤 흐림	21/26
구례	비온뒤 흐림	22/28	군산	비온뒤 흐림	20/25
강진	비온뒤 흐림	21/27	남원	비온뒤 흐림	20/26
해남	비온뒤 흐림	21/28	홍산도	비온뒤 흐림	20/24
장성	비온뒤 흐림	21/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중~남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앞바다	중~남동 1.5~2.5	북동~동 1.5~2.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2.0~3.0
남해 서부 앞바다(남)	북동~동 1.5~2.5	북동~동 2.0~3.0

◇돌매

목포	밀물	썰물
	12:52	00:13
	00:13	12:52
여수	밀물	썰물
	02:14	08:37
	51:03	20:55

◇주간 날씨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	☁	☁	☁	☀	☀	☀
24/30	22/31	22/29	23/26	23/30	22/30	22/30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운동	10
빨래	20

식사시간 장난친다며 유아 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

식사 시간에 친구와 장난친다며 네 살짜리 아이 목을 짓누르고 폭력을 휘두른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에 대한 주의·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식사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여·48)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여·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 기 원생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뒤 법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식사 중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4살 원생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다 쪽으로 짓누르고 등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 머리를 한차례 때리고 도시락 덮개를 아이가 앉은 책상으로 내던진 혐의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000만원대 양파 흠쳐 팔아 생활비로 쓴 '탈선 형제'

쌍따발

○~함평의 한 고속도로 다리 밑에 쌓아둔 수 천 만 원 상당의 양파를 흠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쓴 용감한(?) 형제가 경찰서행.

○~8일 함평경찰에 따르면 김모(35·함평군)씨 형제는 지난 5일 새벽 0시10분께 함평군 서해안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A(52)씨의 양파 80방(1600kg)을 1t 화물차

에 몰래 싣고 가는 등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양파를 흠친 혐의.

○~경찰은 양파 도난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순찰하던 중 양파 농사를 짓지 않는 김씨 형제의 차에 양파가 실린 것을 이상히 여기고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

/함평=황운학기자 hwang@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